

KT 노동조합

KT TRADE UNION
발행일: 2007년 11월 1일(목)

22th

■ 발행인: 이재식 ■ 편집인: 최광수 ■ 주소: 463-717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06 ■ 대표전화: 031-727-4820(편집국 4836) ■ 팩스: 031-727-4815 ■ 홈페이지: www.kttu.or.kr ■ 편집디자인: 디자인 여백(02-2279-9631)

중앙본부 투쟁본부로 전환 중앙상집, 30일부터 무기한 철야농성 돌입

노동조합은 10월 29일 중앙사무실행위 원회를 열고 중앙본부를 투쟁본부체로 전환했다. 또한 30일부터 단체교섭이 타결될 때까지 철야농성에 돌입했다.

노동조합은 지난 9월 20일 시작해 본교섭 3회, 임금실무소위원회 5번, 단협실무소위원회 4번,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4번, 노사관계개선협의회 2회 등 총 18번의 교섭을 진행했다. 그러나 사측은 안건과는 전혀 상관없는 내용을 내세우며 본교섭과 실무교섭을 지연시키고 있다. 결국 노동조합은 22일부터 실무교섭을 전면 중단하고 중간보고대회를 개최한 바 있다. 그러나 교섭해태의 책임을 지고 있는 사측이 여전히 자세변화를 보이고 있지 않다.

사측은 교섭 초기부터 계획적으로 교섭을 해태하려는 전략을 구사해오고 있다. 경영환경 운운하면서 노동조합의 요구에 대해 수용불가 입장을 반복하는 것은 예년과 같았지만 논의의 상황을 거론하며 제도개약을 요구한 것은 분명 교섭이전으로 밖에 풀이 되지 않는다. 사측은 실무교섭에서 연봉제, 직무급제, 성과급 차등 확대, 호봉승급폐지(매출감소시 호봉승급 유예) 등이 반영되어야만 임금협상을 할 수 있다는 억지주장을 펼쳤다. 그러다가 노동조합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주장을 철회하더니 10월 17일 경영악화로 인해 현수준의 임금유지도 어렵다면서 경영혁신, 비용구조 개선, 생산성 향상을 통해 임금 인상 및 유지 방안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이는 3만 조합원을 조삼모사로 우롱하는 것이 분명하다. 사측은 말만 살짝 바꿔 같은 내용, 같은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다. 이에 더해 사측은 조합원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막말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단체교섭이라는 공식 석상에서 조합원들을 "자기일도 스스로 못하는 사람이 25%다", "사무직은 무정량근로자다", "직원들 임금동결해도 견딜 것이다", "임금구조 개선없으면 임금 삭감이다" 등의 말을 거침없이 쏟아냈다. 이러한 막말을 쏟아내는 사람들이 바로



KT경영진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이다.

과연 노동조합의 요구가 과한 것인가.

노동조합이 요구한 임금 7%인상은 물가인상과 경제성장을 반영해 최소한 실질임금을 보장받기 위한 안이다.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평균 임금인상률(5인 이상 사업장)은 평균 7%이며 같은 기간 물가는 평균 3.2%가 올랐고 경제성장률은 5%를 넘어섰다. 그동안 KT는 어떠한가. 2011년과 2006년 임금동결을 비롯해 지금까지 협의 임금인상률은 3%이하

를 기록하고 있다. 사측이 경쟁사라고 떠벌이는 하나로 텔레콤은 2001년 4천5백만 원이던 연봉이 2006년 6천만 원에 이르렀고 있으며 데이콤은 2006년 6천5백만 원에 이르렀고 있다.

KT는 연매출 11조, 순이익 1조2천억원이다. 지난해 재계순위 9위의 흑자기록인 것이다. 이처럼 막대한 흑자경영에도 사측은 통신회사의 어려움만을 호소하고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매년 6000억 원 이상의 자금을 주주들에게 배당하기 위한 것이다. 이중 4천억원 이상이 외국인에게 배당되고 있는 현실이다. 직원들에

게는 복사지 한장도 못쓰게 하고, 인건비 축소 운운하는 이유가 바로 주주들의 배당료를 늘리기 위한 것이다.

이제 투쟁을 조직하자.

그러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KT와 자회사의 교섭상황을 보면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감돌고 있다. KT뿐만 아니라 KT네트웍스에서는 연봉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으며 KTF는 성과급제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전면적인 제도개약 요구가 사측의 노림수인 것이다. 그러면서 사측은 뻔뻔스럽게도 고배당으로 자신들의

자리를 보장받기 위해 직원들을 희생양으로 쓰고 있는 것이다. 이제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집행부가 알아서 잘하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나 회피는 오히려 사측에게 유리한 국면을 안겨줄 뿐이다. 노동조합이 이러한 제도개약을 정면돌파하기 위해서는 조합원들의 단결투쟁이 필요하다. 30일 투쟁본부는 ▲지부장은 지부실에 상시대하고 매일 아침 출근선전전을 시행할 것 ▲매일 출근 후 각실 간담회 활성화 ▲권역회의 시행 철저 ▲휴가금지 등의 1호 지침을 시달했다. 이제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단결하고 투쟁하자.

건설노동자 정해진조합원 분신
비정규노동자들의 절규
노무현 정권 4년,
비정규직은 더늘어



지난 10월 27일 건설일용노동자인 정해진 전국건설노동자 인천지역본부 전기원분과 조합원이 "인천전기원 파업투쟁 정당하다. (영진전업)유해성 구속하라"며 분신해 전신 3-4도 화상을 입고 7시간 사투 끝에 결국 운명을 달리했다.

전봇대·철탑 위에 올라가 고압 전선을 만지는 전기원으로 20여년 일해온 정해진 조합원은 전국건설노동자 인천지역본부 전기원분과 조합원 13개 전기공사 업체들을 상대로 지난 6월부터 △주 44시간 노동 △단체협약 체결 등을 내걸고 27일로 131일째 벌여온 파업에 동참 중이었다.

정해진 조합원은 이날 오후 2시에 인천부평구 청천동의 전기공사업체인 영진전업 건물 앞에서 집회를 벌이던 중, 갑자기 몸에 시너를 끼고 불을 붙였다. "사측 교섭대표인) 영진전업 사장을 구속하라" 등을 외치며 분신한 것이다. 한전이 발주한 전기공사를 낙찰받은 업체들은 일용 또는 상용노동자인 전기원을 채용해 일을 맡긴다. 낙찰만 받고 개인이나 다른 시공업체에 다단계로 하도급을 주기도 한다. 정해진 조합원도 영진전업에서 2년 동안 일하다가, 현재는 일용직으로 여러 업체에 불려다니며 일하고 있었다.

업체들이 낙찰 단가를 낮추려다보니, 전기원들의 근무환경은 더 열악해진다. 하루 10-12시간 근무는 보통이고, 높은 전봇대에 올라가 수만 볼트의 고압 전류가 흐르는 전선을 다루는 작업을 하다보니 항상 생명의 위협에 노출된다.

지난해 인천지역 노조를 처음 만들어 교섭을 시도했지만, 업체들은 '민주노총을 탈퇴하라'며 노조를 인정하지 않았다. 지난 19일 새벽엔 영진전업 앞 천막농성장에 한국노총 조끼를 입은 300여명이 침입해 폭력을 휘두르는 일도 벌어졌다. 회사 쪽의 회유·협박으로 6월엔 140여명이던 조합원도 지금은 20여명으로 줄었다.

한편, 통계청은 노무현 정권 4년동안 비정규직이 1백만명 이상 늘어난 것으로 발표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비정규직만 109만명이 늘어나 2007년 비정규직이 570만명으로 추산된다는 것이다. 이 통계에는 도급, 특수고용노동자는 포함되지 않았다. 증가율로 보면 노정권 4년 동안 정규직 노동자가 매년 2.9% 증가한 반면 비정규직 노동자는 평균 4.5%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고용안정성이 가장 취약한 일용직과 파견, 용역 등 비전형노동자가 1년전에 비해 14.2% 급증했으며, 연재계 계약 관계 해지당할 수 있는 비기간제 노동자 12.2% 증가, 상대적으로 고용안정성 높은 기간제노동자는 7% 축소된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노총 등은 정부가 주장하는 비정규직 통계는 축소됐으며 2007년 현재 870만명에 이른다는 결과를 내놓고 있다. 비정규 노동자들의 생명이 위기에 처한 심각한 상태다.

투쟁본부 전환에 따른 투쟁명령 제1호 지침시달

2007년 단체교섭이 사측의 불성실 교섭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바

중앙본부는 투쟁본부로 전환하고 10월 30일부터 중앙상집 전원이 철야농성에 돌입한다.

이에 따라 노동조합 조합간부 행동지침을 "투쟁명령 1호"로 다음과 같이 시달하오니

철저히 이행하시기 바라며, 이행 여부를 불시 점검하여

지적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침수행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조합간부 행동지침

- 각 지방본부 비상연락망 현행화 및 각 지부 출근선전전 지원
- 각 지부장은 지부실에서 상시 대기하며 아침 출근선전전을 매일 시행
- 몸자보 착용 및 일일소식지 활용
- 게시판 현행화
- 임단협 포스터, 성명서, 각종 게시물
- 사측과 함께하는 각종 행사(봉사활동 및 회식 등) 절대불가
- 권역회의 시행 철저
- 매일 1회 및 필요할 때 수시 시행
- 조합조직 확충 및 몸자보 생활화
- 매일 출근 후 각 실에 방문하여 간담회 활성화
- KTTU 홈페이지 자료실 활용
- 단체교섭 기간에 휴가 절대금지
- 지방 및 지부집행위원회의 수시 개최하여 현재 교섭상황 공유



노란 조끼의 물결, 전국을 누비다

노동조합은 사측의 교섭해태에 맞서 실무교섭을 전면중단하고 단체교섭 중간보고대회를 위해 전국 곳곳을 누비고 다녔다. 중앙상무집행위원을 비롯한 조합간부들은 조합원들을 만나면서 사측의 억지 주장을 알리는 한편 조합원들의 결의를 모아 더욱 힘찬 투쟁을 전개할 것을 다짐했다.



현장 조합원의 소리

이 글은 현장의 조합원들이 단체교섭 진행상황을 보고 느낀 점을 노동조합 홈페이지에 게시한 것입니다.

경영진은 자기양심에서 진정으로 우리나라로, 인간같이, 인간답게 사십시오~~

임금을 올리면 생산성도 매출도 쑥쑥 올라간다

20년간 사측의 호의를 기대했으나~~(딱 한번 있었네요, '06년도에 이준사장님께서 당시 정부와 주주의 엄청난 반대를 무릅쓰고 베푸신 큰 호의 => 덕분에 2~3년간은 그런대로 살 만 했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학교졸업 후 취미와 소질을 살려 각자 자신의 중소기업체를 경영하는 공쥐와 팔쥐 자매 좋아하던 경기는 1년 동안이나 나아질 줄 모르고 부진을 거듭하고 있었다 이들이 경영하는 회사도 사장이 어렵기는 마찬가지. 자매는 오랫동안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은 둘의 성격만큼이나 대조적이었다.

20년 전에 회사가 잘 나갈 때 임금협상시 사측에서 "정부방침이라서 올려주지 못한다" 하였으나 동기간 같은 공기업에서는 정부방침을 지키고서도 매년 10%대씩 올려줘 20년이 지난 지금은 그 회사들은 눈부신 성장을 했고 직원들의 임금수준도 재계 10위권인데 이쯤에 저평가 대던 우리의 경영진 나라들 때문에 사기를 잃었는진 몰라도 같은 기간이 지난 우리 지금 회사도 개편이고 임금수준도 재계순위 50위에도 못미치니 이 얼마나 통탄할 일인가?

공쥐는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기로 했다. 임금도 못하는 근로자가 몇명있는데, 이 기회에 알아서 회사를 떠나겠지 하는 기대감도 없었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불만을 가진 근로자들이 속속 공쥐의 회사를 떠나기 시작했다. 이 소식을 들은 공쥐는 처음엔 기뻐했지만 사표를 낸 사람들의 이름을 본 순간 좋아할 일이 아님을 깨달았다. 기대와는 달리 능력이 있는 일자들을 다른 곳에서 구한사람들이다. 반면에 공쥐가 능력이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옮길 수 있는 직장이 없어 그냥 회사에 남아 있었다."이건 아니잖아!" 공쥐의 한숨이 깊어졌다. 자연히 공쥐 회사의 생산성이 떨어졌고 새로 디자인한 옷에는 어딘지 모르게 침울한 분위기가 흘렀다. 현명한 소비자들이 이를 모를리가 없었다.마침내 공쥐의 회사는 문을 닫을 지경에 이르렀다.팔쥐는 정반대의 전략을 취했다.회사사정이 어려웠지만 오히려 임금을 소폭 올려줬다.

헌데 20년이 지난 지금은 => 회사가 어려워니 못올려준다? 경영진 나라들. 그렇다면 과연 언제 우리의 임금을 아무런 이유없이 속 시원히 올려 줄 수 있나?

임금인상의 효과는 극적이었다. 근로자들의 사기가 하늘을 찌를 듯이 높아졌고 자신의 직장이 최고라는 자부심이 충만했다. 누가 뭐라하지 않았지만 스스로 더 열심히 일하기 시작했다.지금의 직장을 잃지 말아야 하는 생각에 한눈 파는 근로자는 사라졌다.자연히 생산성이 높아졌다. 또 유능한 사람들이 팔쥐 회사에서 일하고 싶다는 취급 지원서를 내기 시작했다. 팔쥐는 가만히 앉아서 좋은 인재를 뽑을 수 있었다. 팔쥐의 회사가 새옷을 출시할 때마다 시장의 반응이 뜨거웠다. "어머 이 옷봐. 뭔가 인간미 넘치는 숨겨져!" 팔쥐의 회사는 불경기 속에서도 경영난을 극복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당신들도 같은 수준이 되어야 하지 않나요? 우리는 평달에 200만원도 안되는데 당신들은 2억원을 받으니 2,000,000/200,000,000 = 1/100 즉, 우리 평달엔 당신들 봉급의 1%만 가지고 한달을 살아갑니다.

이 기사는 동아일보 2007년 10월 24일 수요일 B12면에 나와 있습니다
회사 나라들 신문쯤 보이소! 보시고 반성을...

당신들만 대학생자식을 키우고 우리는 초등학교생 자식만 키우니까? 당신들만 나이 먹고 우리 안 먹습니까? 당신들은 1년만 보내면 20억을 벌지만 우리 현재의 임금수준으로 10년을 뺄 뺄이 일해도 1억 모으기가 정말 힘듭니다.. 우리도 당신들처럼 풍요롭게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더욱 더 열심히 현장에서 정열을 쏟아붓고 있고요...

헌데, 매년 협상대만 되면 당신들의 그 영무세 같은 말. 진짜 정말로 너무하시네요..

당신들의 마음은 안 그럴지 몰라도 아니 필요 없었지 몰라도 우리들은 당신들의 경영방침이 현실상황에 맞던 안맞던 간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으니 우리만 이라도 당신들에 대하여 동정감을 느끼게 해주세요



KT네트웍스 노동조합 “인사개악 규탄대회” 참가

KT노동조합, 임시 조합원 총회 열어 쟁의 발생 결의



KT노동조합은 14일, KT네트웍스 노동조합(위원장 김대곤) 전체 조합원이 개최한 '인사개악 규탄대회'에 참가했다.

지난 9월 3일 사측의 대기발령 발표로 촉발된 투쟁은 현장 설명회, 지부 결의대회 등 노동조합의 발빠른 움직임으로 전체적인 투쟁 분위기를 엮어 나갔으며, 또한 KT그룹노조의 적극적인 연대 투쟁 결의를 이끌어냈다.

노래패 소리타래의 흥겨운 사전마당으로 분위기를 잡은 규탄대회는 '고용안정 쟁취투쟁'의 결의에 찬 투쟁 구호가 시종일관 반복되었다.

KT노동조합 김대곤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전체 직원은 회사의 이익을 위해 힘든 상황에서도 열심히 일해왔다면, 방만한 부실경영의 책임을 성실히 일하는 직원에게 전가시키는 사측의 파렴치한 작태를 규탄했다.

김대곤 위원장은 대기발령이 즉각 철회되지 않을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사측의 물ynch을 분명하게 응징할 것임을 천명하였다.

투쟁사에 나선 KT노동조합 지체식 위원장은 이번 투쟁이 굳이 네트웍스만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그룹사 전반의 흐름과 무관하지 않음을 강조하였다.

그룹사 전반의 선례에서 나타났듯 대기발령은 개별 직원에게 가해지는 차원을 넘어 구조조정설의 칼날을 지니고 있음을 간파하고, 네트웍스 투쟁이 승리할 수 있도록 그룹사노조 전반의 역량을 집중시킬 것임을 확인하였다.

IT연맹 박홍식 위원장 또한 투쟁사에서 대기발령 발표 이후 즉각적인 대응과 적절한 조치를 취한 네트웍스 투쟁은 승리할 수밖에 없으며, KT그룹사 노동조합과 연맹의 연대 투쟁 또한 필연적인 승리의 큰 버팀목이 될 것이라 확신하였다. 더불어 네트웍스 노동조합은 투쟁 고삐를 더욱 바짝

당겨야 할 것이며, 투쟁의 시작과 끝을 함께 한다는 연대 단위들의 관심과 지지, 실천적 행동들을 주문하였다.

결의대회 참가자들은 회사의 진정한 주인으로서 소중한 우리의 권리를 바로 찾고 생존권 위협에 맞서기 위해 ▲ 일부의 문제가 아닌 KT그룹 전체의 문제로 인식하며 공동의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할 것 ▲ 동지를 믿고, 노동조합을 믿고 공동의 목표에 매진할 것 ▲ 회사의 주인은 우리임을 지각하며, 생존권 사수에 앞장설 것 ▲ 인사개악을 원천분쇄하고, 불순한 무리의 척결을 힘차게 결의했다.

한편, 결의대회 이후 열린 KT네트웍스 노동조합 임시 조합원 총회에서 전체 참가자들은 만장일치로 쟁의발생을 결의하였다.

노동조합은 계열사 임원을 업무방해, 명예훼손과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소

지난 분교협에서 거론했던 계열사 임원의 "KT는 이미 다 끝났다."라는 발언은 KT의 임금 및 단체교섭 제1차 본회의(2007.09.20)를 개최한 후, 다음 달 10월 1일 첫 실무회의를 시작한 날로부터 불과 8일 만에 언급한 발언으로써 이는 다분히 치밀하게 계산된 의도적인 발언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즉 2007년도 임금 및 단체교섭과 관련하여 본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불신을 조장하는 물론, KT그룹노동조합의 공동투쟁에 그룹노동조합 간의 불신을 조장하여 결과적으로 단결력과 투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더 나아가 KT를 포함하여 KT계열사의 노사관계에 불신 풍조를 조성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그동안 매년 KT의 단체교섭을 전후로 출처불명의 허무맹랑한 유언비어(인적 구조조정과 관련된 36.9 대란설, 단체교섭과 관련하여 짜고 치는 고스톱이니, 이미 내부적으로 합의를 해놓고 쇼를 하고 있다느니, 며칠 안으로 끝난대더라, 등등...)들이 난무하여 노동조합의 조직과 운용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왔다. 또한, 노사관계에 상호 불신 풍조를 조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결과적으로 KT계열사 임원의 지위에 있음은

고소(고발) 접수증	
고소(고발)인	김병탁
피고소(고발)인	
접수번호	2007-8030
위 고소(고발)장이 접수되었음을 확인함. 2007. 10. 19	
서울중앙지방법경찰청 민원전담관실	
① 담당검사 및 사건번호는 고소장 접수일로부터 3-4일 후 전화(02-590-3114)하여 확인하시기나 방문하여 지하1층 경찰민원실에서 고소접수 증명원을 발급 받으시길 바랍니다.(고소인 본인은 신분증, 대리인은 신분증 및 위임장 지참)	
② 접수 후 연락처 및 주소 등이 변경되면 담당검사실에 그 변경내용을 제출하여야 필요한 통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빙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업무를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KT노동조합의 대·내외적인 명예를 훼손시켰으며, 이는 마땅히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죄),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1조(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에 고소했다.

충남지방본부 천안지부 탐방

퇴직자 및 전출 조합원도 함께하는 천안지부

교통의 요지로써 구도심과 신흥 개발지가 공존하는 역동적인 도시. 중소도시에서 대도시로 탈바꿈하는 변화의 천안을 책임지고 있는 천안지부의 박경순 지부장과 조합간부들을 만났다. 날로 발전하는 도시의 지부답게 천안지부의 첫눈길은 살아움직이는 생동감이 느껴졌다. 조합집행간부들은 빠른 일상중에도 바지부장의 꼼꼼한 성격덕분에 지나치기 쉬운 일 하나도 일일이 챙겨 조합원들이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물심양면 노력하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 다음은 박경순지부장과의 일문일답 ◎

조합원들과의 화합을 위해 천안지부만의 특별한 이벤트가 있다면?

우리 지부는 해마다 연말이나 연초쯤 전체 화합의 밤 행사를 개최합니다. 이 행사는 전출가신 분들과 퇴직사우들도 초청하여 각자의 장기자랑을 통해 우애와 화합을 다지고 자긍심을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알찬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유지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일상조합활동은 어떻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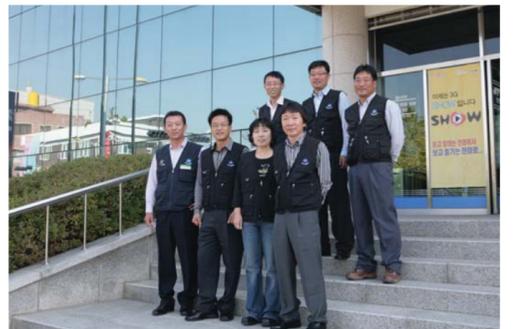
조합간부들과 수시로 회의를 갖고 조합원들의 고충을 파악해 정기 노사회의를 통해 최우선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금 모금을



통해 불우학생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으며 이러한 봉사활동을 통해 조합원들과의 공감대 형성을 하며 화합에 최선을 두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사 지부장으로써 지점 지부장들과의 정기 권역회의를 통해 현안문제를 파악하고 힘을 합쳐 해결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권역 내 조합간부 단결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도고수련관에서 전체 통합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지부장으로써 가장 보람이 있었던 일이라면?

부족한 주차공간으로 조합원들이 청사 주변에 불법주차를 할 수밖에 없어 주변이 혼잡하고 잦은 단속으로 금전적 피해 또한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3년동안 노력한 결과 마침내 5억원의 예산을 확보 주변에 개인주택 3채를 매입하여 주차장으로 활용 주차난을 해결한 일입니다. 앞으로도 주차발당을 세워 주차난을 완벽히 해



소할 것입니다.

지부장으로써 가장 어려운 점은?

현업 지부장으로써 활동에 한계를 느낄 때입니다. 그럴 때는 마음속으로 스스로의 마음을 강하게 다잡으며 조합간부로서의 역할을 생각합니다. 또한 조합 집행간부님들께 많은 위로도 받습니다.

앞으로 지부장으로써의 다짐은?

재선 지부장으로써 천안지부 조합원들의 뜻을 충실히 따르고 모든 면에서 솔선수범하는 지부장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중앙본부와 지방본부의 의지를 조합원들에게 잘 전달하겠습니다.

비정규직 철폐! 한미FTA 비준 저지! 대선투쟁 승리!

전태일 열사 정신계승

2007 전국노동자대회

11월 11일(일) 오후 1시 서울

전야제 11월 10일(토) 오후 7시 서울 올림픽 역도경기장

- 비정규직 철폐!!
- 한미FTA비준 저지!!
- 평화협정체결·국가보안법폐지!!

